

장애인의 활동 및 참여가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 : 장애정체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유동철*, 김동기**, 김경미***, 신유리****

< 국문요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의 활동 및 참여가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과 장애정체감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척도개발에 사용된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자료 수집을 위해 서울, 경기, 대전, 강원, 광주, 부산 등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과 자립생활센터에 우편으로 설문지를 보내고 각 기관마다 조사를 책임지고 담당해 줄 연구조력자(gate-keeper)를 별도로 선정하여 연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전국 900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설문지는 총 840부가 회수되었고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810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활동 및 참여가 장애인의 사회적배제와 4가지 하위차원에 모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인의 활동 및 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배제 정도가 낮아지며, 이는 4가지 하위차원 모두 공통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둘째, 장애정체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전체 사회적 배제와 하위 차원 중에서는 사회적 권리에서의 배제, 참여 및 관계에서의 배제, 그리고 문화 및 규범으로 인한 배제에 대한 활동 및 참여의 효과를 장애정체감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활동 및 참여가 사회적 배제, 사회적 권리에서의 배제, 참여 및 관계에서의 배제, 문화 및 규범으로 인한 배제에 미치는 부적 효과가 장애정체감이 높아질수록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실천적·정책적 함의를 제안하였다.

[주제어] 활동 및 참여, 사회적 배제, 장애정체감, 조절효과

* 유동철(제1저자, E-mail: dcyu@deu.ac.kr)

현직: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김동기(교신저자, E-mail: aslikeme@hanmail.net)

현직: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김경미(E-mail: kyungm@ssu.ac.kr)

현직: 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 신유리(E-mail: cuchon2011@nate.com)

현직: 동국대학교 인가와 사회연구소 전임연구원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4S1A3A2035458).

논문접수일 : 2016년 4월 1일, 논문수정일 : 2016년 4월 30일, 게재확정일 : 2016년 5월 9일

A Study on the Effect of Activities and the Particip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on Social Exclus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Disability Identity

Yoo, Dong-chul, Kim, Dong-ki, Kim, Kyung-mee, Shin, Yu-ri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how the activities and particip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fluence their social exclusion,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disability identity. We used surveys to develop a social exclusion scal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We sent the survey to the gatekeepers who worked at welfare agenc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sites for independent living, so that the gatekeepers could contact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order to ask their cooperation on the survey. Through the gatekeepers, we surveyed 840 people with disabilities across the country including Seoul, Daejeon, Gangwon, Gwangju, and Busan. After the exclusion of insincere responses, 810 out of 840 respondents were identified to make up the final sample.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activities and participa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negatively influence four types of social exclusion. Specifically, those who are more active participants experience lower levels of social exclusion as well as its four subsets than other people with disabilities do.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activities and participation and the total score of social exclusion, exclusion from social rights, exclusion from participation and relationships, and exclusion based on culture and norms was moderated by disability identity. Based on these findings, we suggest changes in policy and practice to lessen the social exclus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Korea.

[key words] : *activities and participation, disability identity, moderating effect*

I. 서론

사회적 배제가 소득, 고용, 교육, 주거,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나는 역동적인 차별과 불이익을 일컫는 것이라면 장애인 만큼 사회적 배제를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는 집단도 드물다. 장애인(the disabled)은 사회가 부여한 ‘능력 없는 몸’ 또는 ‘가치가 저하된 사람’으로 분류되어 사회적 배제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다(O’Grady, and Pleasence et al, 2004; Monedero, and Cuesta et al, 2014). 이로 인해 장애인에게는 일상(日常)이 곧 비상(非常)인 생활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직접적으로 확인된다.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은 소득, 고용, 건강, 교육, 고용, 외부활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23.5만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2014년 6월 기준 415.2만원)의 53.8% 수준에 불과했다.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9.0%로 2014년 전체 경제활동참가율 67.8%의 절반 수준이며, 장애인의 취업자 비율은 36.6%에 불과할 뿐 아니라, 취업 장애인의 평균임금 153만원은 한국 전국 상용근로자 월평균임금 329만원의 46% 수준이다. 건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장애인들 중 자신의 건강이 ‘매우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1.3%에 불과하고 ‘ 좋음’ 14.6%, ‘보통’ 30.7%, ‘나쁨’ 38.9%, ‘매우 나쁨’ 14.5% 등의 분포를 보였다. 이는 한국 일반 국민의 주관적 건강평가 결과(통계청, 2013)와 비교해 보았을 때 ‘매우 좋음’ 10.2%, ‘좋은 편’ 35.3%, ‘보통’ 38.6%, ‘나쁜 편’ 13.4%, ‘매우 나쁜 편’ 2.7%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건강상태가 더 나쁜 것을 알 수 있다

(김성희·이연희 외, 2015).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장애인은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56.6%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의 교육수준과는 큰 격차를 보인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장애인이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포괄적인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음을 잘 보여 준다.

특히 장애인은 일반적인 사회적 배제 현상 외에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특수한 사회적 배제의 경험이 있다. 장애인은 장애를 지니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사회적 관계, 장애에 대한 사회적 태도 등에 있어서 더 강하게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다(이용·김동기, 2012:141)는 것이다. 그래서 장애인에게는 사회적 배제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차별이라는 단어가 유독 특별해진다. 차별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구분·배제·불이익의 기제이기 때문에 장애인에게는 사회적 배제 중 참여·관계 같은 속성들이 매우 중요해진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개념에 관한 연구(남기철, 2005; 이용·김동기, 2012)와 사회적 배제 관점에서의 법령 및 이론 분석 연구(이익섭·최정아 2005; 이익섭·최정아 외, 2007; 박형진, 2008; 유동철, 2011; Barnes, and Mercer, 2005, Monedero, and. Cuesta et al, 2014)),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실증 분석 연구(배화옥·김유경, 2009; 유동철·홍현정 외, 2013; Nicholson and Cooper, 2012),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오혜경·김가람, 2011; 신유리, 2012; 신유리·김경미 외, 2012, 신유리·김경미외, 2013; Hall,, 2004; Brewster and Coleyshaw, 2010), 장애인용 사회적 배제 척도개발 연구(김경미·김동기 외, 2013; 김경미·윤재영,

2013) 등이 수행되었다.

그런데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를 다룬 다양한 연구들 중에서 장애인의 활동과 참여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연구는 거의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인은 사회적 차별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활동과 참여는 비장애인보다 삶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장애인이 활동과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의 장애인에 대해 활동과 참여 및 사회적 배제의 관계를 탐색한 유일한 연구가 유동철·홍현정 외(2013)의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 저자들은 장애인의 활동과 참여가 낮을수록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가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그런데 사회적 배제는 지표나 지수에 의해 표현될 수 있는 객관적 실체이기도 하지만 관계를 다룬다는 면에서 심리적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최근 사회적 배제를 사회적 지표가 아닌 주관적 척도로 측정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윤성호, 2012; 김경미·김동기 외, 2013). 사회적 배제의 주관적 측면을 감안한다면 장애인의 활동과 참여의 수준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 직면해 있는 장애인의 주관적인 심리적 상태에 따라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는 장애인의 심리적인 요인들이 사회적 배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보여주지는 못했다.

장애인의 심리적 요인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장애정체감이다. 장애정체감이란 한 마디로 장애인으로서의 자부심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는 장애 권리 철학의 내재화이며, 자신 및 다른 장애인에게 있어 차별이 문제라고 믿는 것을 말한다(이익섭·이민규 외, 2006: 17). 이러한 장애정체감을 내재화한 장애인이라면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행동할 것이므로 사회적 배제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 장애정체감을 긍정화하는 것이 새로운 자원과 집단을 적극적으로 찾게 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옹호하고 장애인에 대한 긍지를 갖게 하기 때문이다(Dunn and Burcaw, 2013).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장애인의 활동과 참여가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장애정체감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장애정체감에 따라 장애인의 활동과 참여가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가?

II. 이론적 고찰

1. 사회적 배제

사회적 배제 개념은 개념 자체가 상당히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학자별, 나라별로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Silver의 사회적 배제 개념이다. 실버(Silver 1994)에 의하면 사회적 배제란 사람들이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 내에서 충분히 포함되지 못한 상태로써 ‘사회적 자원에 대하여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접근 및 이용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이웅·김동기, 2012: 208).

또한 룸(Room 1995)은 사회적 배제를 사회적 부정(denial)이나 비실현(non-realization)을 말하며, 혹은 개인이 ‘정치적, 도덕적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와 묶여있는 정도’가 매우 미약한 상태를 일컫는다. Room의 이러한 관점은 ‘관계적’ 이슈와 관련되어 있다. 관계적 이슈란 ‘부적합한 사회 참여(social participation), 사회 통합(social integration)의 부족, 권력

(power)의 부족'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분배적 이슈와 관련이 있는 빈곤과 대조되는 면이다(Room, 1995; Simon, 2000; 유동철, 2011: 219).

한편 김동기·이용(2012)은 장애인만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의 특성으로 은폐성, 가산성(addictive effect) 및 차별성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고,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의 핵심을 관계 중심성으로 보았다. 이들에 의하면 첫째, 은폐성은 장애인 스스로가 원해서 혹은 국가나 사회, 가족 등에 의해 주류 사회로부터 의도적으로 은폐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배제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둘째, 가산성은 하나의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해결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각 영역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다른 영역에서의 배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차별성은 장애남성과 장애여성 간의 사회적 배제 규모, 내용, 정도 등에 있어서의 차이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는 기존의 행위주체, 상대성 개념과 함께 관계의 질(quality of relationships) 즉, 시민권, 권력, 참여, 통합 등의 관계적 이슈에 대해 어느 정도의 규모와 강도로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김동기·이용, 2012:140).

그런데 사회적 배제에 대한 기존의 시각들은 사회적 배제를 '우리'와 '타자'로 구분시키는 경향이 있다. 우리와 타자의 구분이 명확하고 지표에 의한 거리로 우리와 타자가 구분되는 듯하다. 예를 들어 고용되어 있지 못한 사람들은 전체로서의 사회(society as a whole) 구성원이 되지 못하고(Levitas 1996), 고용 자체가 선한 것처럼 만드는 역할을 한다(Colley and Hodkinson, 2001: 348).

이와 같이 사회적 배제는 참여와 관계의 문제를 매우 중요한 이슈로 만들었지만 우리와

타자의 거리를 좁히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설명하지 못한다. 범주화하고 유형화함으로써 개별적 다양성에 따라 우리와 타자와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더욱이 사회적 배제가 사회적 배제의 주체로서 Agency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지만 사회적 배제를 몸으로 견뎌나가는 또 다른 주체에 대해서는 무심한 편이다. 사회적 배제의 행위자가 중요한 것만큼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사람도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배제를 논할 경우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사람의 주체적인 시각을 함께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2. 장애정체감과 긍정 모델 (affirmation model)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장애인의 주체적 시각을 고려했을 때 가장 적절한 개념이 장애정체감이라고 생각된다. 장애정체감에 대한 연구가 많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합의는 있는 듯하다. 장애정체감(disability identity)은 장애인이 가진 자아정체감을 의미하며, '장애를 가진 자신'에 대한 심리적인 태도와 장애에 대한 관점을 포괄한다(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6). 보가트(Bogart 2015: 105)는 장애정체감을 자신의 장애를 긍정하고 자신의 정체성에 장애인 집단 의식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장애정체감은 장애인의 개인적 의식과 함께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며, 사회적 존재로 장애인이 갖는 어떤 특성이나 속성을 포함한다(Jenkins, 1996). 이는 장애인 자신에 대한 인식과 함께 사회적 인식 및 환경체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장애정체감은 장애인의 장애인다움, 즉 비장애인이 경험하거나 공유하기 어려운 장애인만이 가질 수 있는 장애 및

장애인의 삶에 대한 ‘태도’와 이를 받아들이는 ‘정도’의 혼합물로 설명된다(이익섭·신은경, 2006). 이는 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참여, 자립 생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익섭·홍세희 외, 2007; Shontz and Wright, 1980).

장애정체감을 가장 잘 포착하고 있는 장애 모델이 장애의 긍정 모델인데, 이 모델은 영국의 장애인 문화운동에서 영감을 얻은 스웨인과 프렌치(Swain and French, 2000)에 의해 학술적인 의미에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의료적 관점의 장애의 개인적 모델이 장애를 개인의 비극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면에서는 전통 사회적 모델과 같은 입장에서 있다. 그러나 긍정 모델은 기존의 사회적 모델이 손상(impairment)과 장애(disability)를 나누어서 손상을 애써 외면하면서 장애만을 사회적 맥락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나름대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지닌다고 본다. 손상의 여부에 따라 장애인이나 아니냐가 결정되지는 않지만 전통 사회적 모델이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사회의 구조적 억압과 불이익만으로 장애를 설명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억압과 불이익을 받는 빈자, 소수인종, 성적 소수자 등과 장애인이 구분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장애인도 인종주의자로서 억압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한다(p. 570).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장애의 인식에 대한 공유 여부라고 한다. 즉 스스로에 대한 사회적 정체성을 장애인으로 가지고 있는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도에 장애(impairment)를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를 장애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장애의 긍정 모델에 따르면 이들은 장애인(disabled people)이 아닌 것이다.

또한 장애의 긍정 모델은 전통적 사회적

모델이 불이익과 억압에 집중함으로써 장애를 ‘문제(the problem)’으로 바라보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긍정 모델은 장애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들은 장애인이 장애에 대해 개인적으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동시에 집단적으로도 긍정적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바라본다.

장애의 긍정모델을 함께 구축한 카메론(Cameron, 2011)은 장애의 긍정 모델은 장애 때문에 무엇을 못하게 되거나 박탈당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장애의 정체성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두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선행연구 고찰

신은경·최정아(2007)는 척수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장애정체감이 척수손상 장애인의 우울을 낮춤으로써 사회통합을 증진시키는 간접효과 및 동시에 직접적인 영향도 미치고 있음을 밝혔으며, 이익섭·신은경 외(2007)은 척수손상 장애인 총 397명을 응답대상으로 한 구조모형 검증결과 장애 정체감이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장애 정체감이 손상정도와 접근성이라는 개인 요인과 사회적 지지체계 요인에 대한 매개효과를 가져서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이한나(2008) 또한 척수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장애정체감이 높을수록 사회참여 수준이 높아진다고 결론지었으며, 엄미선·김진희(2010)은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환경적 요인과 장애정체감이 사회통합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는데, 청각장애인의 사회환경적 요인은 사회통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

시에 장애정체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조재삼·송인옥 외(2010)의 연구에서는 중증뇌성마비장애인의 장애정체감이 자립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용·이주희 외(2011)은 서울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장애정체감은 대학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즉, 장애정체감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잘 적응한다는 것이다.

해외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커너(Cunnah, 2015)는 장애대학생들의 정체성이 부정적일수록 학교생활이나 유급활동이 어려워지는 것을 확인했고, 와인버그와 스테릿(Weinberg and Sterritt, 1986)은 농탈정체성(deaf identity)이 발달할수록 사회적으로 보다 수용적인 행동을 하고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사회적응력이 더 높아짐을 보고하였다. 손츠와 라이트(Shontz and Wright, 1980)는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새로운 자아정체감을 갖기 위해 노력하며,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면 장애에 대한 적응이 높아짐으로써 이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심리사회적 적응이 가능해진다고 하였다.

보가트(Bogart 2015)는 다발성 경화증을 지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장애정체감이 장애인의 우울과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장애정체성이 자기존중감, 효능감이나 삶의 만족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들도 보고되고 있는데, 보가트(Bogart, 2014)는 226명의 선천적, 후천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선천적 장애인과 후천적 장애인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르며 이 과정에 장애정체감이 매개효과를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나리오-메드몬드, 노엘과 페른(Nario-Redmond, Noel and Fern., 2013)은

471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증연구에서 장애정체감이 높을수록 집단적인 전략을 많이 사용하며, 집단적 효능감과 개인적 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자기옹호의 경험이 긍정적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고 이것이 사회적 포함(social inclusion)을 강화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Anderson and Bigby, 2015).

III. 연구방법

1. 연구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활동과 참여가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장애인의 활동과 참여가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을 장애정체감이 조절할 것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장애인의 활동과 참여가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과 장애정체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척도개발(김경미·김동기 외, 2013)에 사용된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김경미·김동기 외(2013) 연구에서의 조사대상자 선정은 서울, 경기, 대전, 강원, 광주, 부산 등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과 자립생활센터 이용자들 중 본 연구의 목적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장애인을 각 기관에서 추천받아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각각의 기관 및 센터에 우편으로 설문지를 보내고 각 기관마다 조사를 책임지고 담당해 줄 연구조력자

(gate-keeper)를 별도로 선정하여 연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2년 6월 15일~7월 20일 약 35일에 걸쳐 전국 900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설문지는 총 840부가 회수되었고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총 810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종속변수: 사회적 배제

사회적 배제는 김경미·김동기 외(2013)에 의해 개발된 사회적 배제 개념을 의미한다. 즉,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는 물질적 분배에서의 배제(8문항), 사회적 권리에서의 배제(8문항), 참여와 관계에서의 배제(17문항), 문화·규범으로 인한 배제(14문항), 총 4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배제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

본 연구에 사용된 사회적 배제척도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44$, 각 요인별 신뢰도는 물질적 분배에서의 배제는 .892, 사회적 권리에서의 배제는 .747, 참여와 관계에서의 배제는 .915, 문화·규범으로 인한 배제는 .918로 나타났다.

2) 독립변수: 활동과 참여

활동과 참여는 사회적 배제 개발(김경미·김동기 외, 2013)에 사용된 조사자료 중 사회활동과 참여에 관한 41문항을 활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활동과 참여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 활동과 참여의 Cronbach $\alpha = .950$ 로 나타났다.

3) 조절변수: 장애정체감

장애정체감은 사회적 배제 개발(김경미·김동기 외, 2013)에 사용된 조사자료 중 장애정체감에 관한 23문항을 활용하였다. 장애정체감은 이익섭·이민규 외(2006)에 의해 개발된 척도로서, 인간으로서의 가치(8문항), 장애수용(4문항), 권리주장(4문항), 공통근거(3문항), 외적 장애물(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장애정체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 장애정체감의 Cronbach $\alpha = .907$ 로 나타났다.

4) 통제변수

성별은 남자(1), 여자(0)으로, 연령은 연속변수로, 기초수급여부는 수급자(1), 비수급자(0)으로, 직업유무는 직업 없음(1), 직업 있음(0)으로, 장애유형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1), 시각 및 청각장애(0)으로, 중증여부는 중증(1), 경증(0)으로, 주관적 건강상태는 매우 안 좋음(1), 매우 좋음(4)로 측정하였다.

4. 자료분석방법

활동과 참여가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효과와 장애정체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20.0 버전을 활용하여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독립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팽창지수(VIF)를 확인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성별은 여자 369명(45.7%), 남자 438명(54.3%)로 나타났고, 둘째, 연령은 40~50대가 404명(50.2%)로 가장 많이 조사되었으며, 셋째, 기초생활수급여부는 수급자가 275명(39.1%)로 나타나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넷째, 직업유무는 없음이 409명(54.6%)로 좀 더 많았고, 다섯째, 장애유형은 지체장애가 460명(59.7%)으로 가장 많이 조사되었다. 여섯째, 장애정도는 장애등급 1급 및 2급에 해당하는 중증장애는 438명(55.2%)로 나타나 중증장애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건강상태는 건강한 편이다가 346명(43.5%), 매우 건강한 편이다가 91명(11.4%)로 나타나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약 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일반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n=807)	여자	369	45.7
	남자	438	54.3
연령 (n=804)	30대이하	226	28.1
	40~50대	404	50.2
	60대이상	174	21.6
기초 수급 여부 (n=703)	비수급자	428	60.9
	수급자	275	39.1
직업 유무 (n=749)	있음	340	45.4
	없음	409	54.6

장애 유형 (n=770)	지체장애	460	59.7
	뇌병변 장애	178	23.1
	시각장애	82	10.6
	청각장애	50	6.5
장애 정도 (n=793)	중증	438	55.2
	경증	355	44.8
주관적 건강 상태 (n=796)	매우 건강하지 않은 편임	72	9.0
	건강하지 않은 편임	287	36.1
	건강한 편임	346	43.5
	매우 건강한 편임	91	11.4

<표2> 주요변수의 특성

변수	평균	표준편차
사회적 배제	2.35	.39
물질적 배제	2.38	.63
사회적 권리 배제	2.69	.50
참여 및 관계 배제	2.35	.48
문화 및 규범 배제	2.13	.51
장애정체감	2.80	.40
활동 및 참여	2.76	.52

2. 주요 변수의 특성

주요변수의 특성을 살펴보면, 사회적 배제의 전체평균은 2.35점으로 나타났고, 하위차원 별로 살펴보면 물질적 분배에서의 배제는 2.38 점, 사회적 권리에서의 배제는 2.69점, 참여 및 관계에서의 배제는 2.35점, 문화·규범으로 인한 배제는 2.13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 권리에서의 배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장애정체감은 2.80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고, 활동 및 참여수준도 2.76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양호함을 알 수 있다.

3. 활동 및 참여가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

활동 및 참여가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제변수 중 성별, 기초수급여부, 직업유무, 신체적 장애여부, 중증여부는 가변수화 하였다. 그리고 각 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VIF값으로 확인한 결과, VIF 값이 3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활동 및 참여가 전체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연령($\beta=.082$), 기초수급여부($\beta=.085$), 직업유무($\beta=.091$), 주관적 건강상태($\beta=-.165$), 활동 및 참여(β

일수록, 직업이 없을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안 좋을수록, 활동 및 참여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으로 배제당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활동 및 참여가 물질적 분배에서의 배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연령($\beta=.107$), 기초수급여부($\beta=.261$), 중증여부($\beta=.117$), 주관적 건강상태($\beta=-.080$), 활동 및 참여($\beta=-.285$)가 물질적 분배에서의 배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기초수급자일수록, 중증일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안 좋을수록, 활동 및 참여수준이 낮을수록 물질적 분배에서의 배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활동 및 참여가 사회적 권리에서의 배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신체적 장애여부($\beta=-.133$), 중증여부($\beta=.214$), 주관적 건강상태($\beta=-.136$), 활동 및 참여($\beta=-.208$)가 사회적 권리에서의 배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각 및 청각장애인일수록,

<표3> 활동 및 참여가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

구분	사회적 배제(β)	물질적 배제(β)	사회적 권리배제(β)	참여 및 관계 배제(β)	문화 및 규범 배제(β)
성별	.046	.057	-.048	.033	.071*
연령	.082*	.107**	.065	.106**	-.016
기초수급 여부	.085*	.261***	.004	.030	.013
직업유무	.091*	.021	.057	.064#	.112**
신체적 장애여부	-.046	-.057	-.133***	-.080*	.078*
중증여부	.038	.117**	.214***	.007	.065#
주관적 건강상태	-.165***	-.080*	-.136***	-.143***	-.136***
활동 및 참여	-.504***	-.285***	-.208***	-.556***	-.407***
R2	.429	.216	.162	.430***	.309
F	54.487***	19.856***	14.009***	54.730***	32.380***

$p<.1$, * $p<.05$, ** $p<.01$, *** $p<.001$

$\beta=-.504$)가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기초수급자

중증일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안 좋을수록, 활동 및 참여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 권리에서

의 배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활동 및 참여가 참여와 관계에서의 배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연령($\beta = .106$), 직업유무($\beta = .064$), 신체적 장애여부($\beta = -.080$), 주관적 건강상태($\beta = -.143$), 활동 및 참여($\beta = -.556$)가 참여와 관계에서의 배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직업이 없을수록, 시각 및 청각장애 인일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안 좋을수록, 활동 및 참여수준이 낮을수록 참여와 관계에서의 배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활동 및 참여가 문화 및 규범으로 인한 배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성별($\beta = .071$), 직업유무($\beta = .112$), 신체적 장애 여부($\beta = .078$), 중증여부($\beta = .065$), 주관적 건강 상태($\beta = -.136$), 활동 및 참여($\beta = -.407$)가 문화 및 규범으로 인한 배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일수록, 직업이 없을수록,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일수록, 중증일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안 좋을수록, 활동 및 참여수준이 낮을수록 문화 및 규범으로 인한 배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장애정체감의 조절효과

활동 및 참여가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장애정체감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제변수 중 성별, 기초수급여부, 직업유무, 신체적 장애여부, 중증여부는 위와 마찬가지로 가변수화 하였고 각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VIF값으로 확인한 결과, VIF 값이 3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호작용항을 만들에 있어서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각

우선 활동 및 참여가 전체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장애정체감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성별($\beta = .053$), 연령($\beta = .073$), 기초수급여부($\beta = .091$), 직업유무($\beta = .086$), 신체적 장애여부($\beta = -.064$), 주관적 건강상태($\beta = -.169$), 활동 및 참여($\beta = -.457$), 장애정체감($\beta = -.115$), 상호작용항($\beta = -.112$)가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자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기초수급자일수록, 직업이 없을수록, 시각 및 청각장애인일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안 좋을수록, 활동 및 참여수준이 낮을수록, 장애정체감이 낮을수록 사회적으로 배제당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호작용항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활동 및 참여가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부적(-)효과가 장애정체감이 클수록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활동 및 참여가 물질적 분배에서의 배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장애정체감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연령($\beta = .110$), 기초수급 여부($\beta = .262$), 중증여부($\beta = .121$), 주관적 건강 상태($\beta = -.086$), 활동 및 참여($\beta = -.239$)가 물질적 분배에서의 배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기초수급자일수록, 중증일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안 좋을수록, 활동 및 참여수준이 낮을수록 물질적 분배에서 배제당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장애정체감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활동 및 참여가 사회적 권리에서의 배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장애정체감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신체적 장애여부($\beta = -.149$), 중증여부($\beta = .221$), 주관적 건강상태($\beta = -.143$), 활동 및 참여($\beta = -.225$), 상호작

각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하였음.

용향($\beta=-.128$)가 사회적 권리에서의 배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각 및 청각장애인일수록, 중증일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안 좋을수록, 활동 및 참여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 권리에서 배제당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호작용항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활동 및 참여가 사회적 권리에서의 배제에 미치는 부적(-)효과가 장애정체감이 클수록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활동 및 참여가 참여 및 관계에서의 배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장애정체감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연령($\beta=.092$), 신체적 장애여부($\beta=-.096$), 주관적 건강상태($\beta=-.148$), 활동 및 참여($\beta=-.586$), 상호작용항($\beta=-.112$)가 참여 및 관계에서의 배제에 영향을 미치는

의 배제에 미치는 부적(-)효과가 장애정체감이 클수록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활동 및 참여가 문화 및 규범으로 인한 배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장애정체감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직업유무($\beta=.125$), 신체적 장애여부($\beta=.065$), 중증여부($\beta=.061$), 주관적 건강상태($\beta=-.141$), 활동 및 참여($\beta=-.255$), 장애정체감($\beta=-.250$), 상호작용항($\beta=-.062$)가 문화 및 규범으로 인한 배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업이 없을수록,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일수록, 중증일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안 좋을수록, 활동 및 참여수준이 낮을수록, 장애정체감이 낮을수록 문화 및 규범으로 인한 배제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호작용항도 통

<표4> 장애정체감의 조절효과

구분	사회적 배제(β)	물질적 배제(β)	사회적 권리배제(β)	참여 및 관계 배제(β)	문화 및 규범 배제(β)
성별	.053#	.056	-.042	.040	.077
연령	.073*	.110**	.052	.092**	-.014
기초수급 여부	.091**	.262***	-.001	.027	.032
직업유무	.086*	.030	.046	.050	.125***
신체적 장애여부	-.064*	-.062	-.149***	-.096**	.065#
중증여부	.041	.121***	.221***	.015	.061#
주관적 건강상태	-.169***	-.086*	-.143***	-.148***	-.141***
활동 및 참여(A)	-.457***	-.239***	-.225***	-.586***	-.255***
장애정체감(B)	-.115**	-.067	-.013	-.005	-.250***
상호작용항(A*B)	-.112***	-.055	-.128***	-.112***	-.062#
R2	.462	.220	.187	.467	.351
F	49.462***	16.089***	13.204***	50.358***	31.036***

$p<.1$, * $p<.05$, ** $p<.01$, *** $p<.001$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높을수록, 시각 및 청각장애인일수록, 주관적 건강상태가 안 좋을수록, 활동 및 참여수준이 낮을수록 참여 및 관계에서 배제당하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호작용항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활동 및 참여가 참여 및 관계에서

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활동 및 참여가 문화 및 규범으로 인한 배제에 미치는 부적(-)효과가 장애정체감이 클수록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이 글은 장애인의 활동 및 참여수준이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장애정체감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척도개발에 사용한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활동 및 참여가 장애인의 사회적배제와 4가지 하위차원에 모두 부정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인의 활동 및 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배제 정도가 낮아지며, 이는 4가지 하위차원 모두 공통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둘째, 장애정체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전체 사회적 배제와 하위 차원 중에서는 사회적 권리에서의 배제, 참여 및 관계에서의 배제, 그리고 문화 및 규범으로 인한 배제에 대한 활동 및 참여의 효과를 장애정체감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활동 및 참여가 사회적 배제, 사회적 권리에서의 배제, 참여 및 관계에서의 배제, 문화 및 규범으로 인한 배제에 미치는 부정 효과가 장애정체감이 높아질수록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회적 배제의 하위척도 중 물질적 분배에 대해서는 조절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활동과 참여 자체는 사회적 배제에 영향을 미치고 장애정체감은 이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조절효과를 가지지만 장애정체감이라는 것이 주로 심리사회적 면에서 작동하는 기제라서 심리사회적 면을 반영한 사회적 권리, 참여와 관계, 문화와 규범 영역의 사회적 배제에는 조절효과를 가지지만 심리사회적인 요소가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물질적 분배 측면에서는 조절효과를 가

지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장애정체성이 삶의 만족도나 효능감을 높여준다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론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회적 배제라는 측면에서 이와 같은 효과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상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론적 함의를 지닌다. 첫째, 장애인의 활동과 참여 및 사회적 배제의 역동적 관계 속에 장애정체감이란 심리사회적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설명했다는 것이다. 장애정체감과 사회적 배제를 설명한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들의 관계를 설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제대로 소개되어 있지 않은 ‘장애의 긍정 모델’을 소개했다는 점이다. 장애의 긍정 모델은 물리적 몸과 사회적 장애를 단절시켜온 사회적 모델을 반성적으로 성찰함과 동시에 장애의 긍정적 의미와 역할을 적극적으로 추구했다는 면에서 영국의 장애학계에서는 자주 거론되고 있는 모델이다. 이 모델을 소개하고 이에 근거한 장애정체감의 구체적인 작동과정을 사회적 배제의 측면에서 규명했다는 점이 이 연구의 또 다른 학술적 의의라고 할 수 있겠다.

이상과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실천적 노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를 다룰 경우 물질적이고 객관적인 지표들 통한 접근도 중요하지만 장애정체감과 같은 심리사회적 측면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사회의 자원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경우가 많다. 장애정체감의 형성과정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면 한정된 자원의 효과적 활용이라는 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장애정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장애인자립생활대학이라든지 장애인 평생교육 등의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의 정규교과 과정에서도 장애를 긍정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배치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으로서의 나는 누구인가’, ‘사회와 나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장애인으로서의 나는 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등을 다룰 수 있는 구체적 교육 프로그램들은 장애정체감을 높이고 사회적 배제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장애인이 장애정체감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과 별도로 장애인의 물질적 분배에 관한 사회복지정책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물질적 분배는 심리사회적 요소가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영역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따라서 장애인의 물질적 분배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최근 장애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생존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률이 제정된다면 장애인의 물질적 분배 영역에서의 사회적 배제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미·김동기·유동철·신유리, 2013,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척도개발 연구”. 『한국직업재활학회』 23(1), pp. 47-64.
- 김경미·윤재영, 2013. “장애인의 환경 척도개발”, 『장애와고용』 23(1), pp. 189~208 .
- 김성희 외, 2015, 2014 장애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남기철, 2005, “한국사회의 사회적 배제와 장애인 고용”. 『장애이고용』, 15(2), pp. 121-142.
- 박형진, 2008,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극복을 위한 자립생활 지원방 안”, 『사회연구』 15(1), pp. 69-94.
- 배화옥·김유경, 2009, “여성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빈곤의 실증분석”, 『보건사회연구』 29(2), pp. 55-76.
- 신유리·김경미·전정식, 2012, “생애사 를 통해 본 장애인의 사회적 배 제에 관한 연구: 세대의 영역별 배제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19, pp. 65-86.
- 신유리, 2012,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경험에 대한 생애사 연구: 지체 뇌병변 장애인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4(2), pp. 299-323.
- 신유리 · 김경미 · 유동철 · 김동기, 2013,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포커스 집단면 접 활용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4(2), pp. 141~648.
- 신은경·최정아, 2007,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척수손상 장애인의 사회 통합 영향요인: 우울, 장애정체감,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재활복지』 11(1), pp. 1-29.
- 엄미선·김진희, 2010, “청각장애인의 사회통합 영향 요인- 장애정체감과 사회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3), pp. 219-242.
- 오혜경·김가람, 2011, “여성시각장애인의 사회적 배제경험과 통합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16, pp. 47-67.
- 유동철, 2011,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와 참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3(1), pp. 217-239.
- 유동철·홍현정·김경미·김동기·신유리, 2013. “장애인의 장애특성이 사회적 배제에 미치는 영향-환경적 요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2, pp. 183-206.
- 윤성호, 2012, “한국형 사회배제성 척도 개발 연구”, 『사회보장연구』 28(1), pp. 53-95.
- 이익섭·최정아, 2005, “국제장애인권리 조약의 의의와 한계: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 연구』 13, pp. 2-27
- 이익섭·이민규·이범석·신은경·최정아·김동기·최현정, 2006, “장애 정체감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이익섭·신은경, 2006, “장애정체감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척수손상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국장애

- 인복지학』 5, pp. 111-141.
- 이익섭·신은경·이민규·이범석, 2007, “척수 손상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장애정체감의 매개효과와 검증 연구-”, 『장애와 고용』 17(2), pp. 31-53.
- 이익섭·홍세희·신은경, 2007, “장애정체감 척도의 Rasch 모형 적용”, 『한국사회복지학』 59(4), pp. 273-296.
- 이익섭·최정아·이동영, 2007, “장애인 자립생활모델에 대한 탐색적 고찰: 사회적 배제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14(1), pp. 48-81.
- 이용·김동기, 2012, “교환이론관점에서 장애인 사회적 배제 고찰: 에머슨의 교환연결망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3, pp. 201-227.
- 이용·이주희·이한나, 2011, “장애대학생의 장애정체감과 대학생활 적응의 관계 연구: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분석”, 『특수교육』 10(3), pp. 245-268.
- 이한나, 2008, 척수장애인의 장애정체감과 사회참여의 관계에 관한 연구-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와 검증-.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재삼·송인옥·채현탁, 2010, “중증뇌성마비장애인의 장애정체감 및 대처효능감이 자립에 미치는 인과관계연구”, 『재활복지』 14(3), pp. 257-280.

Reference

- A lvey, Simon. 2000. "Social Exclusion and Public Sector Housing Policy in Scotland."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and Policy* 20 (5/6): 72-94.
- Anderson, Sian and Christine. Bigby. 2015. "Self-Advocacy as a Means to Positive Identities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We Just Help Them, Be Them Really.'" *Journal of Applied Research in Intellectual Disabilities*. Doi: 10.1111/jar.12223.
- Barnes, Colin and Geof Mercer. 2005. "Disability, Work, and Welfare: Challenging the Social Exclusion of Disabled Persons." *Work, Employment and Society* 19 (3): 527-545.
- Bogart, Kathleen R. 2014. "The Role of Disability Self-concept in Adaptation to Congenital or Acquired Disability." *Rehabilitation Psychology* 59 (1): 107-115.
- . 2015. "Disability Identity Predicts Lower Anxiety and Depression in Multiple Sclerosis." *Rehabilitation Psychology* 60 (1): 105-109.
- Brewster, Stephanie and Liz Coleyshaw. 2011. "Participation or Exclusion? Perspectives of Pupils with Autistic Spectrum Disorders on Their Participation in Leisure Activities." *British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39 (4): 284-291.
- Cameron, Cameron. 2011. "Not Our Problem: Impairment as Difference, Disability as Role." *Journal of Inclusive Practice in Further and Higher Education* 3 (2): 10-25.
- Colley, Helen and Phil Hodkinson. 2001. "Problems with *Bridging the Gap*: The Reversal of Structure and Agency in Addressing Social Exclusion." *Critical Social Policy* 21 (3): 335-359.
- Cunnah, Wendy. 2015. "Disabled Students: Identity, Inclusion and Work-based Placements." *Disability and Society* 30 (2): 213-226.
- Dunn, Dana S. and Shane Burcaw. 2013. "Disability Identity: Exploring Narrative Accounts of Disability." *Rehabilitation Psychology* 58 (2): 148-157.
- Hall, Edward. 2004. "Social Geographies of Learning Disability: Narratives of Exclusion and Inclusion." *Area* 36 (3): 298-306.
- Jenkins, Richard. 2014. *Social Identity*. 4th ed. London: Routledge.
- Levitas, Ruth. 1996. "The Concept of Social Exclusion and the New Durkheimian Hegemony." *Critical Social Policy* 16 (46): 5-20.
- Monedero, José Antonio Gómez; Concepción Unave Cuesta; and Beatriz Núñez Angulo. 2014. "Social Image of Disability: Vulnerability of the Dignity of Women with Disability and Social Exclusion Contexts." *Procedia — Social and Political*

- Sciences* 161: 115-120.
- Nario-Redmond, Michelle R; Jeffrey G. Noel; and Emily Fern. 2013. "Redefining Disability, Re-imagining the Self: Disability Identification Predicts Self-esteem and Strategic Responses to Stigma." *Self and Identity* 12 (5): 468-488.
- Nicholson, Laura and S. A. Cooper. 2012. "Social Exclusion and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 Rural-Urban Comparison."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y Research* 57 (4): 333-346.
- O'Grady, A; P. Pleasence; N. J. Balmar; A. Buck; and H. Genn. 2004. "Disability, Social Exclusion and the Consequential Experience of Justiciable Problems." *Disability and Society* 19 (3): 259-271.
- Redley, Marcus. 2009. "Understanding the Social Exclusion and Stalled Welfare of Citizens with Learning Disabilities." *Disability and Society* 24 (4): 489-501.
- Room, Graham. 1995.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The New European Agenda for Policy and Research." In *Beyond the Threshold: The Measurement and Analysis of Social Exclusion*, edited by Graham Room, 10-28. Bristol U.K.: Policy Press.
- Shontz, Franklin C. and Beatrice A. Wright. 1980. "The Distinctiveness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11 (6): 919-924.
- Silver, Hilary. 1994. "Social Exclusion and Social Solidarity: Three Paradigms." *International Labour Review* 133 (5/6): 531-578.
- Swain, John and Sally French. 2000. "Towards an Affirmation Model of Disability." *Disability and Society* 15 (4): 569-582.
- Weinberg, Nancy and Mary Sterritt. 1986. "Disability and Identity: A Study of Identity Patterns in Adolescents with Hearing Impairments." *Rehabilitation Psychology* 31 (2): 95-102.

국문참고문헌의 영어표기
(Korean References in Roman Alphabet)

- Bae Hwa-ok and Kim Yu-kyung. 2009. "Social Exclusion and Poverty of Disabled Women." *Health and Social Welfare* 29 (2): 55-76.
- Jo Jae-sam, Song In-uk, and Chae Hyun-tak. 2010. "An Analysis of the Causal Model of Disability Identity, Coping Self-efficacy, and Independence."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14 (3): 257-280.
- Kim Kyung-mee, Kim Dong-ki, Yoo Dong-chul, and Shin Yu-ri. 2013. "Development of a Social Exclusion Scal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23 (1): 47-64.
- Kim Kyung-mee and Yoon Jae-young. 2013. "Development of a Scale to Measure Environmental Factors." *Disability and Employment* 23 (1): 189-208.
- Kim Seong-hee et al. 2015. *National Surve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14*.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Lee Han-na. 2008.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sability Identity of Persons with Spinal Cord Injuries and their Social Participation;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Social Support."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Lee, Ick-seop and Choi Jung-ah. 2005.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 Discussion on the Social Exclus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13: 2-27.
- Lee Ick-seop, Choi Jung-ah, and Lee Dong-jong. 2007. "An Exploratory Discussion on the Independent Living Model, Focusing on the Social Exclusion Perspective." *Korea Social Policy Review* 14 (1): 48-81.
- Lee Ick-seop, Hong Se-hee, and Shin Eun-kyoung. 2007. "Rasch Rating Scale Modeling of the Disability Identity Scal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9 (4): 273-296.
- Lee Ick-seop, Rhee Min-kyu, Lee Bum-suk, Shin Eun-kyoung, Choi Jung-ah, Kim Dong-ki, and Choi Hyun-jeong. 2006. "A Study on the Disability Identity Scale (DIS)." School of Social Welfare,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Lee Ick-seop and Shin Eun-kyoung. 2006. "A Study on the Disability Identity Scale (DIS) for Persons with Spinal Cord Injuries."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5: 111-141.
- Lee Ick-seop, Shin Eun-kyoung, Rhee Min-kyu and Lee Bum-suk. 2007.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Life Satisfaction of Persons with Spinal Cord Injury." *Disability and Employment* 17 (2): 31-53.
- Lee Wo-ong and Kim Dong-ki. 2012. "An Exchange Theoretical Analysis on

- Social Exclusion of the Disabled, Focusing on Exchange Network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33: 201-227.
- Lee Wo-ong, Lee Ju-hee, and Lee Han-na. 201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isability Identity of Student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Adjustment to College: The Moderating Effect of Perceived Social Support.” *Special Education Research* 10 (3): 245-268.
- Nam Ki-cheol. 2005. “Social Exclusion and Employment of the Disabled in Korea.” *Disability and Employment* 15 (2): 121-142.
- Oh Hea-kyung and Kim Ka-ram. 2011. “A Study on the Social Exclusion Experience and Inclusion of Women with Visual Impairment.”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16: 47-67.
- Ohem Mi-sun and Kim Jin-hui. 2010.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Social Integration of the Hearing Disabled Person: Disability Identity and Social Environmental Factors.”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33: 219-242.
- Park Hyung-jin. 2008. “Independent Living: An Alternative Support Syst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o Overcome Social Exclusion.” *Social Studies* 15 (1): 69-94.
- Shin Eun-kyoung and Choi Jung-ah. 2007.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Social Integration of Persons with Spinal Cord Injuries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zing the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and Disability Identity.”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11 (1): 1-29.
- Shin Yu-ri. 2012. “A Biographical Study of Social Exclusion Experiences, Focused on the Physical and Cerebral Palsy Disabled.”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4 (2): 299-323.
- Shin Yu-ri, Kim Kyung-mee, and Jun Jung-sik. 2012. “Exploring Social Exclusion from the Perspectiv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by Using Biographical Study, Focused on Dimensional Experiences in a Generation.” *Disability and Welfare* 19: 65-86.
- Shin Yu-ri, Kim Kyung-mee, Yoo Dong-chul, and Kim Dong-ki. 2013. “A Qualitative Study on the Experience of Social Exclusion against the Disabled, Based on Focus Group Interviews.” *Korea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4 (2): 141-168.
- Yu Dong-chul. 2011. “Social Exclusion and Participation of the Disabled, Focused on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3 (1): 217-239.
- Yu Dong-chul, Hong Kyung-jung, Kim Kyung-mee, Kim Dong-ki, and Shin Yu-ri. 2013. “The Effects of

Disability on Social Exclusion,
Focused on the Mediated Moderating
Effect of Environments.”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22: 183-206.

Yoon Sung-ho. 2012. “Development of the
Korean-type Social Exclusiveness
Scale (KSES).” *Journal of Social
Security Studies* 28 (1): 53-95.